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라** 상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접속하신 후, '건축
 문화상'을 클릭하시고 '홍보 이미지'에서 '광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2.03 **028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LED 조명실증센터/ 남구 도시보건지소



시론 02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 _ 신정철

취임사 - 건축문화사랑 제2기 편집인 _ 서재형

퇴임사 - 건축문화사랑 제1기 편집인 _ 박홍근

작품소개 03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 한국광기술원 LED 조명실증센터, 남구 도시보건지소

특집기획 04-0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건축과 도시계획 06

세계의 신도시_ 7부 - 셀러브레이션, 사사이드_ 도영준

건축과 도시철학 07

도시의 공공성과 건축 _ 손승광

설계경기 08

군산 · 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 설계경기

사람 & issue 09

김영의 건축을 펼치는 건축사 _ 정기호

세계건축문화탐방 10

스페인, 포르투갈 건축기행 1부 _ 신영은

군산 · 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영화 '말하는 건축가' 개봉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



신정철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에이 디그룹

2012년 10월 26일은 대한민국의 건축사들이 광주를 찾아오는 대한민국 건축사들의 축제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이 시대 건축사로 살아가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우리의 동료 건축사들이 광주를 찾아옵니다. 우리들 모두 기운이 소진되긴 했지만 광주에서 실의와 좌절로 힘들어 하는 대한민국의 건축사를 따뜻하게 품어주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나 봅니다. 며칠전까지 동장군의 기세가 등등 하더니 경칩을 기다리기도 한 듯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까지 거침없이 내지를 두드려댁니다.

얼어붙은 대지 깊은 곳에서 잠자던 생명을 깨우고 지난겨울의 흔적들을 구석구석 씻어내며 봄 채비를 하는 걸 보니 봄의 기운이 어느새 온통 세상을 가득 덮어 버린 것 같습니다.

희망의 계절 봄처럼...

사람들은 봄을 희망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봄의 숲은 생명을 살려내는 기운들이 넘쳐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원기를 회복하였음을 알리는 생명의 축제를 펼치는 시간들로 가득해지는 계절입니다.

겨울의 기나긴 고통을 참아낸 승리의 찬가로 신명나는 굿판이 온 산에 들에 펼쳐지는 계절입니다. 자연은 참으로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벌거벗은 채 온 몸으로 뼈 속까지 아려오는 긴 겨울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낸 나무들의 가늘픈 가지 끝에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따뜻한 봄소식이 들려 있는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들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난겨울은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겨울은 겉으로 보기엔 죽은 듯이 적막하고 고요한 시간들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겨울의 고통과 절망, 아픔을 이겨내며 외롭게 피나는 사투를 벌이며 견뎌낸 인고의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너머의 세월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우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와준 봄이 어찌 대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의 소식을 가득안고 찾아온 봄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 희망의 바이러스가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으로 힘겨운 버텨내기를 하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 모두의 삶 가운데도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봄이 대견한 것처럼 내게는 처절한 사투를 견뎌내며 건축사로 이 시대의 아픔을 견안고 사는 건축사들로 모두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우리는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곳곳하게 건축사로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감동스럽고 눈물겹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봄은 아직도 멀리 있지만 기필코 머지않은 날 우리가 기다리는 봄이 찾아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희망의 말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조금 더 힘을 내자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눈 한번 찻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며 힘

들게 살아온 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을 구원할 구원투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들은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 투수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여유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착해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것을 오랜 시간동안 뼈저리게 느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품고 우리들 자신에게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2012년 10월 26일, 광주에서 대한민국 건축사들의 축제가 펼쳐져

2012년 10월 26일은 대한민국의 건축사들이 광주를 찾아오는 축제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이 시대 건축사로 살아가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우리의 동료 건축사들이 광주를 찾아옵니다.

우리들 모두 기운이 소진되긴 했지만 광주에서 실의와 좌절로 힘들어 하는 대한민국의 건축사를 따뜻하게 품어주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희망을 나누고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건축사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껏 힘들어 했던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우리 고장 광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오래도록 회고되는 그런 건축사 대회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과 서로를 꺼안는 따뜻한 가슴이 있다면, 우리가 온통 청춘을 바쳐 살아온 길에 대한 한 가닥의 사랑이 남아 있다면, 2012년 대한민국 광주의 10월은 기필코 우리의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 날 것입니다.

건축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뛰어 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숭고한 가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까지 그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살려낸 그 가치를 가지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건축사를 살려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 거대한 일이 광주에서 시작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너도 나도 아닌 우리가 함께 서야 할 때입니다.

동료 건축사 여러분! 문화수도 광주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건축사의 가치를 온 천하에 선포하는 축제가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준비합시다. ☼

2012년 3월 5일 경칩 날 아침에
대한민국 건축사 신정철

동료 건축사 여러분!
문화수도 광주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문
화를 만들어 가는 건
축사의 가치를 온 천
하에 선포하는 축제가
되도록 힘을 모읍
시다. 그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의 사
기가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준비 합시다.

취임사 - 건축문화사랑 제2기 편집인



사재형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신

『擇言篤志』 건축문화사랑의 편집인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자 이 글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성리학 필독서인 근사록(近思錄) 위학(爲學)편 '택언독지, 소이거업아(擇言篤志, 所以居業也)'의 일부다. 전체적으로는 '말을 가려서 하고 의지를 도탑게 하면, 그 분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유익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뚜렷한 소신으로 창간의 목적을 지향함으로써 독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편집인의 책무라고 생각되었기에 택언독지(擇言篤志)를 지표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건축문화사랑이 바람직한 건축문화를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려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꿈은 창대하지만 중책을 맡고 보니 한편으로 걱정이 앞선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벼집기도 하고 무심기도 하다. 하여 독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질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문은 몇몇 편집위원들이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오늘의 건축문화사랑이 있기까지 산고의 고통을 인내하며 열렬히 봉사해 주신 재기 박홍근 편집인과 편집위원들께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퇴임사 - 건축문화사랑 제1기 편집인



박홍근 건축사
(주)모우 건축사사무소

저런 이유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편집인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많은 분들과 협의하며, 고민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2009년 11월에 첫 발행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2년 반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한 행복했다.

그간 바쁜 일정 중에도 신문편집에 참여 해주신 편집위원, 학생기자 그리고 좋은 원고를 제공해주신 독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미 있는 광고로 신문에 등재를 제공해 주신 광고주께도 감사드리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광주·전남·북 건축사 협회 임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문화사랑'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소통으로 건축과 도시, 삶의 환경문제를 풀어나가는 '집단지성'을 축적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과 열정이 요구된다.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정신적, 시간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게 될 차기 편집인과 편집위원들에게 기대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늘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한국광기술원 LED 조명실증센터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정태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영일. 필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 1110-7(첨단 디자인센터내)
 건축면적 : 1,198.38㎡
 연 면 적 : 2,229.64㎡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 징크강판
 시 공 : 에원종합건설(주)



한국광기술원은 디자인센터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기능인 LED실험 및 인증 업무를 하는 곳이다. 건물의 배치 및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센터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야 하였다. 때문에 외관디자인 및 건물의 규모에 있어 디자인센터보다는 좀더 낮추고, 연구 및 인증업무의 기능상 좀더 차분하고, 또한 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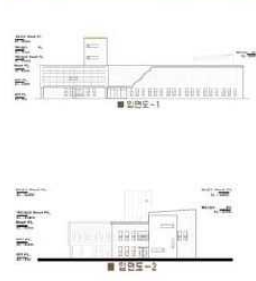
- 부지의 형태는 동서의 장축으로 사다리꼴 형태이다. 디자인센터 주출입구의 위치에서 볼 때 본 건물은 정면을 보여 준다. 디자인센터와는 직각의 배치로 새로운 외부 공간을 이룰 수 있는 배치이며, 디자인센터와는 상반된 기능으로 보다 거리가 있는 부분에 배치하였다.

2. 형태계획

- 디자인센터는 규모나 형태면에서 시각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같은 부지에 배치됨으로써 상호 조화가 요구되었다. 디자인센터보다는 좀더 낮추고, 연구 및 인증업무의 기능상 좀 더 차분하고, 또한 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고층보다는 저층으로 하였으며, 창호 구성 및 형태의 단조로움과 모던한 이미지를 추구하고자하였다. 2층 건물의 낮고 긴 건물로 수평적인 건물이다. 따라서 징크 강판의 수직 라인과 수평라인의 조화로운 배치로 단조로움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3. 입면계획

- 디자인센터보다는 화려하지않고 튀지 않으며, 사용시설의 기능상 좀 더 차분하도록 징크강판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회색빛 외관에 변화를 주고자 은빛강판으로 두껍 및 울퉁을 적용하여 수평을 강조하고 사선으로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남구 도시보건지소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김기준 건축사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974-108
 건축면적 : 398.91㎡
 연 면 적 : 999.58㎡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멘조
 마 감 : 화강석버너구이, 목재사이딩, 알루미늄쉬트
 시 공 : 조영훈



남구 주월동 주택가에 위치한 남구보건지소는 취약계층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시설이다. 공공적 기능의 수행과 휴식적 공간계획을 추구하며, 조형성을 부각시켜 도시이미지를 재창출하고자 하였다.

1.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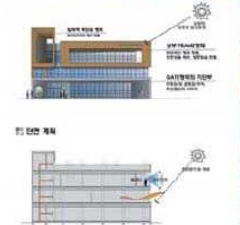
- 가로 및 도시축에 순응되게 배치하여 주변가로 및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주보행 동선상 Mass를 셋백시켜 기존에 위치한 주월2동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를 부각시키고, 그 공간을 이용해 주차장을 전면 배치하여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동일 맥락을 추구하였다.

2. 평면계획

- 측면에 코어를 배치하여 효율적 동선을 계획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한 가변형 대공간을 구성하여 융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남향에 위치한 커튼월은 채광 및 환기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코니는 기존 주택지의 상하 프라이버시와 배면부의 조망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평면 형태를 구성하며, 동시에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입면계획

- 사면이 정면성을 가지고 있는 남구 도시보건지소는 단조로운 주택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축적 정체성을 완성한다. 1층의 게이트형태의 기반부는 안정감 및 균형감을 가지는 동시에 동선흡입의 이미지 및 주출입부의 이미지를 창출한다. 상부의 Frame형태의 Mass는 현대적인 형태를 창출하며 정면성을 확보, 장중함을 연출한다. 입체적으로 강조된 계단실의 형태는 랜드마크적 요소로 전체 가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가로 경관을 형성시킨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 지난 2011년 7월부터 계획되어 2월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5월 경 개막식 개최될 예정
- 국내외 건축계 차세대 작가로 꼽히는 5인의 공공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에 위치한 광주 도심공원인 사직공원이 새로운 공공 조형물로 조성된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는 공원 내 5개 장소를 예술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재조성하는 프로젝트로서 지난해 7월 국내외 건축계 차세대 작가로 꼽히는 김영준, 이민아, 조민석, 박동준, 신혜원 등 5인의 작가를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경 사업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11월 경에는 작품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2월 말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5월 경 개막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내용을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에 위치한 광주 도심공원 사직공원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개요

- 사업목적
- 광주의 도시맥락을 현대예술을 통해 재발견하여 광주의 정체성을 새롭게 고안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의 장 마련
- 사직공원을 휴식과 전망의 공간을 기본으로 하여 공공예술, 공공디자인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 기간 : 2011. 3부터 2012년 5월까지
-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 사직공원 일원
- 사업비 : 13억 5천만원
- 설치비 : 4억 8천여만원(예산금액)
- 예술감독 : 박흥근 건축사(주)포유 건축사사무소



▲ 좌측부터 박동준, 조민석, 김영준, 박흥근, 이민아, 신혜원, 송효상 건축사. ▲ 지난해 11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대시민 작품설명회를 가졌다.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이번 사직공원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박흥근 공공예술감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공원풍경 parkscape : 기억과 관계

사직공원은 도심에 있는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다. 이곳은 나라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며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이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사직을 끊고 우리 민족을 억압시키기 위하여 사직단의 격을 낮추고 공원으로 삼았다.

1980년대 말에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 사직단은 헐렸고, 그 뒤 사직단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1991년 동물원이 옮겨지면서 사직단을 복원해 오늘에 이른다.

지금까지 사직단, 동물원, 야외 수영장, 소풍, 놀이 등으로 기억된 장소,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과 운동, 워킹포토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번 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며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추억으로 기억되어질 공원으로의 변신은 꾀한다.

신의 창조물인 자연에, 인간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을 넣는다. 이런 시설물은 인간을 위한 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추억과 역사로 기억되어지며, 주변과 관계 속에서 천천히 완성되어 간다.

이는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 건조환경(建造環境)과의 관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지난 기억에 대한 이야기 꺼리가 가득 찬다면 진정한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는 장소에 대한 기억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원풍경 parkscape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공공예술감독 박흥근

참여작가 5인 소개



김영준
(주)김영준 도시건축 대표

약력
2011~현재 피추출만도시 2단계, 건축코디네이터
201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풀리 큐레이터
2011 김수근 베를린 전시회 큐레이터

대표작
2008 AIA 건축상(인류사상) 분당차병원
2008 경기도 건축상 금상, 루프하우스
2005 건축기법회상, 지하재
2005 제6회 김수근건축상, 허유재 병원



이민아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약력
2003~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출강
2006 교분사 비주사육,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 일터분상
2002 베니스비엔날레 초대작가

대표작
2010 (예물도-기그심은) 폐교 복원, 해녀담의 소 등, 동명사
2010 서울 강남지구 디자인시범 주거단지
2010 춘천 정소년 자립생활관
200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대림국제관



조민석
매스스터디스 대표

약력
2000 뉴욕건축가연맹 '미국 젊은건축가상' 수상
2008 부티코노리 세계 최우수 초고층 건축상
플5 작품 최우수 선정
2010 상하이엑스포 한국관,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대표작
2010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오른 피빌리온
2010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상하이, 중국
2009 에스 트래뉴, 서울, 한국
2008 부티코 모노리, 서울, 한국



박동준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약력
전남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2006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시설학교수상

대표작
2011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건축 및 전시물
2011 천주교 광주대학교 구 하남동 성당
2005 향토음식박물관
2004 무인백린지 수상유리온실



신혜원
lokaldesign 대표

약력
2010~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건축학과 출강
2006 제10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출품

대표작
2010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 열린도시/변화를 위해
2010 한강니들목 프로젝트 : 신반포터널, 제주커뮤니티센터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설치 작품소개

Sajic Public Art Project



▲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5개소 위치도

■ 흔적

- 작 가 : 박동준
 - 규 모 : 1층, 높이 약 3.5m
 - 면 적 : 약 51.48㎡
 - 재 료 : 친환경합성목재 스테인리스(MIRROR)
 - 기 능 : 공원관리사무소, 휴게공간
- 기대효과 : 사직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안내소 역할과 쾌적한 휴게공간 보행 조성으로 인한 편의성과 안전성 증대
- 작품해설 : 사직공원 세 진입로의 정성부 접점에 위치한 공원관리사무소는 사직공원의 역사와 기억을 간직한 곳이다. 우리는 이곳이 역사의 잔존물이 아닌 공원의 흔적을 지닌 중요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보았다. 우리는 단절된 영역이었던 기존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유지하되 일부를 공공의 영역으로 내어줌으로써 장소성을 지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흔적을 지닌 새로운 공간 혹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훼손되었던 본래 자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 우리의 계획은 옹벽으로 절단된 지형과 개발로 훼손된 사직공원 본래의 지형을 회복하고 연속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길게 뻗어나온 유산형의 캐노피와 내부공간의 반시멘은 보행자의 시선에 따라 주변의 자연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을 비춰내며 시민들에게 사직공원의 새로운 즐거움과 자연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사직공공 예술 프로젝트 '흔적'은 이 곳이 지녀야 할 공공성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될 것이다.



■ 빈 집

- 작 가 : 조민석
 - 규 모 : 지름 9m, 높이 2.3m
 - 면 적 : 약 63㎡
 - 재 료 : 콘크리트, 친환경 페인트, 조경식재
 - 기 능 : 다목적 휴게공간
- 기대효과 : 공원이용객 편의, 어린이 소풍장소로 활용
- 작품해설 : 이 제안은 빈 집처럼 주인이 없어서,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집을 상상하며 출발했다. 기존의 파고라가 있던 자리에 계획된 '사직공원 빈 집'은 친밀한 스케일의 전통 한옥과 같은 중정형 공간 구성으로 이루어져 익숙하지만, 동시에 빈집에서 느낄 수 있는 낯설고 생소한 경험을 제공한다.
- '사직공원 빈 집'은 9m 지름, 2.3m 높이의 원기둥 매스의 중심에 사자단과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마당'이 있는 평면으로 구성되며,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에 각기 다른 기하학적인 입체 형태로 만들어진 방들이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방'들은 각 공간의 형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행위와 기능을 담는다. 이를 통해 공원에서 휴식 기능과 함께 기존하는 기능들을 흡수한다.
- 이 구조물의 외벽, 상부 표면은 사직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끼가 짙을 수 있도록 처리된 거친 질감의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직공원의 일부로서 주변 환경 속에 흡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내부 공간은 외벽과 대비되도록 백색으로 마감해서 방의 실내성을 강조하고, 백색 모래로 채워진 마당과 함께 추상적인 공간경험을 제공하면서 비용을 통한 조형성을 극대화하였다. 이 내부의 백색 공간들은 외부 공원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액자 역할을 한다.



■ 스텝

- 작 가 : 김영준
 - 규 모 : 최고높이 10.80m
 - 면 적 : 644.53㎡
 - 재 료 : 콘크리트, 친환경 페인트
 - 기 능 : 계단 소규모 다목적 이벤트 공간
 - 특 징 : 경사지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공간 조성
- 작품해설 : 공공의 아트 프로젝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장소성이다. 즉 프로젝트는 자신 내면의 개성이나 의지를 드러내는 자제보다는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르는 보완이나 조정의 역할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자체 완결의 독립적인 형태보다는 공공의 장소와 교류하는 열린 구조의 인프라적인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 주어진 대지는 공원 입구의 거의 주목하기 어려운 경사지이다. 이곳에 간략한 구조체로 다양한 이벤트를 촉발할 수 있는 다층의 길 공간을 제안하였다. 공원 입구를 정비하면서 주변의 기존 건물 간 연결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시 공원의 프로그램이 개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하였다. 사직공원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배경이 되길 기대하였다.



■ 흐르는 풍경

- 작 가 : 신해원
 - 면 적 : 약 250㎡
 - 재 료 : 콘크리트, 목재, 친환경 조경 식재
 - 기 능 : 휴게공간, 다목적 이벤트공간
- 기대효과 : 기존의 지지분하고 정리되지 않던 옹벽과 스탠드를 재조성하여 쾌적한 운동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조성
- 작품해설 : 옛 수영장 무지로 내려가는 샛길의 조용함과 숲에 둘러싸여 있는 계곡 사이로 펼쳐지는 풍경은 아름답다. 이러한 풍경이 인위적으로 절단하여 만들어진 옛 수영장의 영역과는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시각적 단절된 모습을 자연적으로 자연의 흐름과 사람들의 흐름을 채움과 덧붙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작업이 이 작품의 개념이다.
- 기존의 수영장 무지의 스탠드를 새로운 재료를 입히고 단절되어있는 단면의 모습을 이어주면서 자연속의 공연장으로 계획하였다. 숲과 하늘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야외공연을 감상하는 풍경이 조성될 것이다.



■ 기슭(SPA Foot of mountain)

- 작 가 : 이만아
 - 규 모 : 길이444m, 폭 3m
 - 재 료 : 전벽돌, 화강석, 해마석, 사교석, 조경식재 등
 - 기 능 : 산책로
- 기대효과 : 자연색과 어울리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자연 속에 스며드는 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내부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통로 역할 기대
- 작품해설 : 길이 가르는 오랜 기슭은, 대지의 기울어진 덩어리를 버텨 주는 크고 작은 옹벽조각들을 뼈처럼 몸에 묻고 있다. 옹벽은 습기에 부르트며 갈라진 틈으로 이끼를 키운다. 백문동과 참나무가 산적된 거친 기슭 위를 누군가 비스듬히 걷고 있을 때 나는 대지 덩어리의 정교한 ELEVATION을 본다. 기슭이 대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때는 그 위를 오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때다. 기슭 위에 길을 만든다는 것은 길바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슭을 삼킬 달래어 밟아달린 곳과 빗물을 내려 보낼 공간을 성실히 찾아 주는 일이다.
- SPA Foot of mountain은 사직공원 기슭의 ELEVATION을 깨워 일컫는다. 옹벽조각들과 이끼 떼는 골격과 살갗으로 남는다. 경사지게 쪼개지는 기슭의 두 덩어리는 계절 꽃과 나무의 이파리들로 아름다운 캘린더를 만든다. 음자를 이겨내는 건강초 초화류, 세순, 단풍과 낙엽더미로 채색된 기슭의 ELEVATION은 사직공원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오브젝트가 된다. 걷는 길이 아니라 보는 길이 기슭의 ELEVATION은 풍경 속으로 잠 기다리기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명력으로 빛난다.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기 위해 사직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미지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거쳐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을 목표로 최종 실시 설계안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으며 작품 설치는 4월 말 완공,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홍근 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감독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사직공원을 다시 생태공원으로 되살려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며 "장소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공간-자연-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원풍경'을 만들어갈 작업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의 신도시_ 7부

>> 테마파크 배후 주거단지 - 셸러브레이션/ 골프장 중심의 데시벨 제로(0) 도시 - 시사이드

- 1부 : 개요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린피스 - 2011년 9월호
- 2부 :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수도 내피도, 캐나다 최초 기업도시 돈밀스 - 2011년 10월호
- 3부 :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 앨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로스앨레모스 - 2011년 11월호
- 4부 : 대규모 기업도시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미션베이호 - 2011년 12월호
- 5부 : 첨단그린시티 바우반, 국토개발(담)을 위한 배후도시 볼더시티 - 2012년 1월호
- 6부 :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사이버자야, 부동산 개발의 좋은 선례지-섬머린 - 2012년 2월호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2011년 4월호부터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1년 9월호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 가인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 - 기획하였다.



CDP of Celebration

셸러브레이션 (CDP of Celebration)는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중앙부 오스케올라(Osceola) 카운티 북동쪽 끝 올랜도시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지점, 디즈니월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신도시(master planned community)로 계획 구역 면적 약 27.7km²에 인구는 약 9,500명(2003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셸러브레이션(CDP of Celebration)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중앙부 오스케올라(Osceola) 카운티 북동쪽 끝 올랜도시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지점, 디즈니월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신도시(master planned community)로 계획 구역 면적 약 27.7km²에 인구는 약 9,500명(2003년)이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1990년대 초 WDDC⁽¹⁾가 CC⁽²⁾를 설립하여 계획면적 약 20.0km²의 토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 ② 기본계획은 미국의 CRP⁽³⁾ 등, 조정설계는 EDAW⁽⁴⁾가 수행하였다.
- ③ 도시 전체는 20세기 초의 건축양식으로 형성되었고, 고밀도 주거지역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 ④ 1996년 여름 1단계 주거단지⁽⁵⁾가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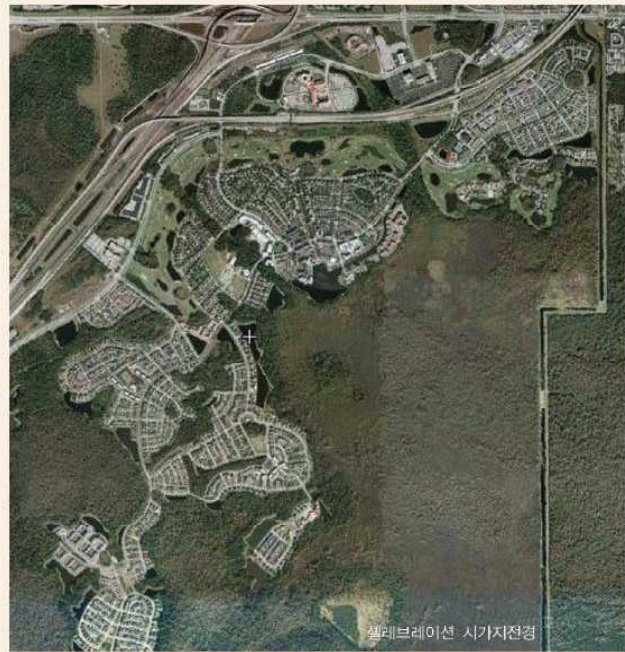
- (1) WDDC : Wall Disney Company 계열사인 Wall Disney Development Company.
- (2) CC : Celebration Company
- (3) CRP 등 : Cooper, Robertson & Partners(1979년 설립하여 뉴욕시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건축·도시설계 전문 회사)와 Robert A. M. Stern(Robert Arthur Morion Stern(1939년~), 미국의 건축가로 예일대학교 건축대학장을 역임하였다.
- (4) EDAW : 샌프란시스코시에 사무실이 있는 조경·건축 및 공원 분야의 전문설계회사이다.
- (5) 1단계 주거단지 : Celebration Village, West Village, Lake Evalyn이며 마지막으로 Artisan Park가 개발되었다.

셸러브레이션은 미국의 도시토지연구소(Urban Land Institute/ULI)에 의해 2001년 「올해의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사이드(Community of Seaside)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서쪽 윌튼(Welton) 카운티 남쪽 멕시코 만에 접해 있는 마치 해변의 한적한 레저휴양단지를 연상하게 하는 주택단지이며, 주거 파라다이스 실현의 꿈이 구체화된 이상적인 신도시(master planned community)로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1979년 부동산개발업자인 로버트 데이비스(Robert Davis)가 자기토지에 조성하였고, 안드레 두아니⁽¹⁾와 엘라자베스 지브 부부⁽²⁾가 계획하였다.
- ② 198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된 시사이드는 계획면적 약 324천m²에 약 11천 명(2007년)이 거주하고 있다.
- ③ 휴양·레저 기능을 극대화한 딜럭스시티(deluxe city)로 조성해 수요자들에게 분양한 민간개발도시이다.
- ④ 시사이드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 「데시벨 제로(decibel-0) 원칙」이다. 집에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휴식만을 취하도록 주거지에서 소음발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다.
- ⑤ 특히, 전체면적의 약 50%에 이르는 녹지가 골프장⁽³⁾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자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의 첫 작품이 시사이드 설계였다.

- (2) 지역 : Elizabeth Plater Zzyberk(195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브랜디(Bryn Mawr)에서 태어난 건축가·도시계획가이며 남편인 안드레 두아니와 함께 많은 작품을 남겼다.
- (3) 골프장 : 5개의 골프장이 있고 골프코스가 주거단지를 침처럼 둘러싸도록 설계하였다.
- (4) 소셜엔지니어링 : Social Engineering. 미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개념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 주민들에게 주거의 본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스포츠, 레저, 휴양, 친목, 봉사 등 각종 활동을 그 주거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소셜 엔지니어링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주택분양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개념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이 처음 시도된 곳이 시사이드 신도시이다. 시사이드의 소셜엔지니어링이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이곳보다 먼저 개발된 레스톤(Reston), 컬럼비아(Columbia), 어바인(Irvine) 등 기존의 신 도시들도 도입하고 하였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은 만한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 (5) 뉴어비니즘 : New Urbanism. 미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도시계획사조 또는 도시계획운동이다. 미국에서 기존 도시계획은 엄격한 지역제로 인해 시가지 확산과 심각한 교통혼잡을 불러왔다. 뉴어비니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하였음에도 용도지역 간 엄격한 구분 보다는 어느 정도의 혼재와 고밀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장거리 통행을 감소시키고 커뮤니티 내 보행환경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1993년 10월 미국 수도 워싱턴 도심에서 바로 남쪽으로 약 9.6km 지점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미국의 저명한 계획가 및 개발전문가 약 170여명이 모인 첫 번째 전국대회로부터 비롯되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교외지역의 정소성의 부족, 중심도시의 쇠퇴, 커뮤니티 내 인종과 소득계층, 분리 현상의 증가, 모든 가족들이 말뉠이해야 하는 경제제 안에서 육아문제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개발이 부른 환경과정을 우려했다.

새로운 도시설계기법의 하나인 소셜엔지니어링⁽⁴⁾이 처음으로 시도된 곳이 바로 이곳이며, 뉴어비니즘⁽⁵⁾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도시이기도 하다.

- (1) 안드레 두아니 : Andres Duany(1949년~), 미국 뉴욕주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의 건축가·도시계획가이다. 1980년 부인과 함께 회사(Duany Plater Zyberk & Company) 본사는 마이애미를 설립하였고 새로운 도시설계기법인 뉴어비니즘 운동의 선구

- 미국 건축가·도시계획가인 피터 칼슨(Peter Calthorpe) 등은 뉴어비니즘 협회(1993년 시카고)를 만들었다. 1996년 뉴어비니즘 협회는 뉴어비니즘 헌장(27개)을 설정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설계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근린구도는 근린중심으로부터 경계까지 반경 1/4 마일 즉 40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 중심부에는 광장, 공공녹지, 상징성이 있는 공공건축물과 같은 공공공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로는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격자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 대중교통수단은 근린 상호 간 또는 주변지역과 원활히 연계되어야 한다.
- 공원, 놀이터, 광장과 같은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Community of Seaside

시사이드 시가지 전경



건축과 도시철학_ 3부

》도시의 공공성과 건축

1부 : 창조도시에서의 건축의 가치 - 2012년 1월호
2부 : 현대건축의 가치관 변화와 혼동



손승광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FCO 도시건축 연구소장
saksghan@dreamwiz.com

2012년 1월호부터 '건축과 도시철학'이라는 지면을 개설하여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의 원고를 4회 기획하였으며 2012년 4월호까지 아래와 같은 주제로 연재된다.

4부 : 시민참여로서 창조도시와 건축 -2012년 4월호

건축이 탄생하는 순간은 대부분 건축되는 대지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완성된 건축은 홀로 존재하기보다는 주변이웃과 전체적으로 어울려 동네, 지역으로 특성화되어진다. 건축은 개별 건물로 디자인되어지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시적 경관을 이룬다. 이러한 도시 경관은 그 지역사회를 특징짓고 모두가 공유하는 경관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도시 전체를 일시에 만드는 시대는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혹은 대지안에서 건축물 각각이 따로 이루어진다.

건축은 건축물마다 용도와 기능이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있고 주문자가 있다.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이 있음에도 그 건축은 그 건축만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한다. 건축을 소유하고 주관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주변의 환경보다는 건축물 자체에 집중하여 다룬다.

일부 건축사는 주변의 건축이나 환경보다는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이 독창적인 디자인을 꿈꾸고, 건축물을 의뢰하는 주인은 그 건축으로 하여금 건축사가 꿈꾸는 개성 있는 건축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건축행위로 하여금 경제적 활동이나 또는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한다. 그러한 욕구를 건축사는 주문으로 받아서 건축으로 완성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기도 한다.

건축은 이웃하는 건축과 어울리는 환경이다

건축은 기능적이든 미학적이든 주변과 관계가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환경의 일부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홀로 고고하여 주변의 다른 이웃과 등지고 살아가거나 배타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아름다운 건축이라 할 수 없다.

일조권 침해, 소음공해, 공기오염, 조망권, 획일성, 시각적인 공해 등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않아야 하는 건축의 도덕성이며, 같이 살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기준이다. 이웃하는 주민들의 관계로서 민원이라는 건축의 공공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축은 사유재산이지만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주택은 개인적인 건축이어서 개인적인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는 보통정 다수인 주민들이 사용자가 되지만 개발시기에는 개발업자가 건축주가 되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대상이기도 하다. 건축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개발회사는 경제적 이윤추구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니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의 가능성보다는 분양과 판매를 우선한다. 중소규모보다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시장논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많은 서민들은 큰 집을 살 수도 입주할 수도 없는 아무 상관 없는 아파트가 넘쳐나게 되는 안타까움에 상대적 박탈감에 풍요로운 시대에 빈곤을 맛보아야 했다.

건축은 사회간접자원이자 국가자원이다.

건축은 시장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경제수준에 맞는 주택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임대이든 소유이든.. 경제적 약자도 주택구입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상으로 사업성을 위한 개발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불행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파트라 칭하는 건축이기도 하였다.

경제적 대상으로 부유층위주의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다가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되자 아파트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은 그 기능을 멈췄다.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없는 이상한 주택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아파트시장은 국가경제를 흔드는 일로 연결이 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기위축과 실업현상이 주택건설 시장과 금융권 등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국민의 행복해야할 권리를 위하여 건축은 국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건축이 자유시장주의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간접자본 건축의 관리

건축이 탄생하는 순간은 대부분 건축되는 대지위에서 개별적



▲ 싱가포르 Marina Centre 지역 아경으로 각각의 건축물들이 모여서 도시경관을 만들고, 싱가포르를 함께 만드는 사회간접자본이다.

◀ ACROS Fukuoka, 후쿠오카에 있는 녹색건축으로 건축물이 도시경관, 자연과 함께 하면서 건축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디자인

로 이루어진다. 완성된 건축은 홀로 존재하기보다는 주변이웃과 전체적으로 어울려 동네, 지역으로 특성화되어진다.

건축은 개별 건물로 디자인되어지면서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시적 경관을 이룬다. 이러한 도시 경관은 그 지역사회를 특징짓고 모두가 공유하는 경관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도시 전체를 일시에 만드는 시대는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혹은 대지안에서 건축물 각각이 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공간, 모두가 함께 어울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안으려면 사회적 수요, 전체 시스템 안에서 경관과 건축 디자인, 경제이익과 행복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건축이 가지는 공공성을 생각하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와 국가에서도 건축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니홀로 아파트, 남양주 - 수려한 자연환경에 니홀로 아파트, 주변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개발이익으로 수익을 올리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는 개발현상



자연지형과 비교적 잘 어울리는 경사지형 타운하우스



모두가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



ACROS Fukuoka, 후쿠오카에 있는 녹색건축으로 건축물이 도시경관, 자연과 함께 하면서 건축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디자인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 설계경기는 산업단지외 대학의 공간적 통합,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산학융합 선진 시스템 구축,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학교육 대학 모델 시행, 산업단지 및 대학의 활성화를 목표로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4-4번지 군산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25,862백만원의 사업비로 2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우수작은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최재영, 가작은 (주)해마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에스티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두 곳이 선정되었다. (가작은 해당사의 사정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당선작 (주)길 건축사사무소_ 이길환 건축사
- 우수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_ 양병범 건축사 + 최재영
- 가작 (주)해마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에스티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 명단 : 전영훈 교수(대전대학교) 이화룡 교수(공주대학교) 오세규 교수(전남대학교) 장동국 교수(조선대학교)
- 이재홍 교수(순천대학교) 김경규 교수(목포대학교) 이상훈 교수(충북대학교) 김미연 교수(정주대학교)
- 조경수 교수(남서울대학교) 문창호 교수(군산대학교) 이경태 과장(군산시청) 김덕수 교수(한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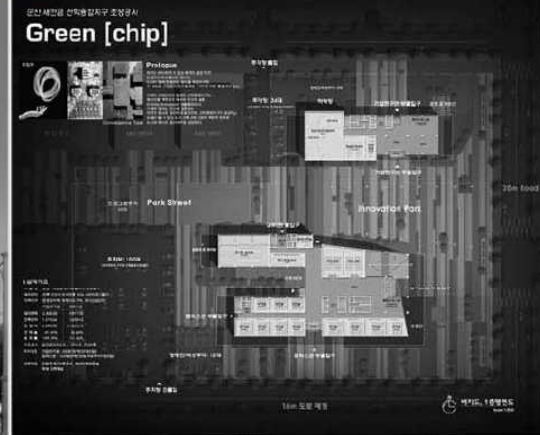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주)길 건축사사무소_ 이길환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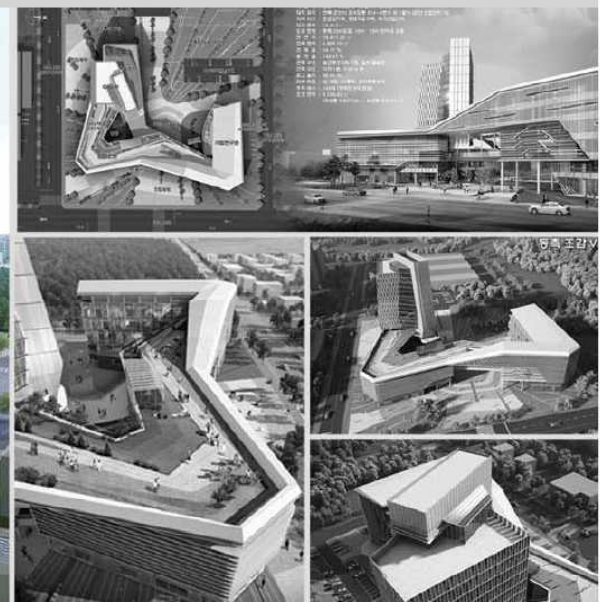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4-4번지의 1필지
지역지구 : 준공업지구,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동 별 : 기업연구관	캠퍼스관
대지면적 : 3,300㎡	9,917㎡
건축면적 : 1,375.66㎡	3,635.43㎡
연 면 적 : 6,580.00㎡	11,063.13㎡
건 폐 율 : 41.69%	36.66%
용 적 율 : 199.39%	111.56%
층 수 : 지하 1층~지상7층	지하 1층~지상9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 목재압축패널, 세라믹복합패널, 친환경로이3중유리	



우수작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_ 양병범 건축사 + 최재영

대지면적 : 13,217㎡	용 적 율 : 199.39%
건축면적 : 4,509.19㎡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3층
연 면 적 : 18,411.33㎡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부 철골조
건 폐 율 : 34.11%	외부 마감 : AL쉬트, AL루버 로이복층유리



감응의 건축을 펼치는 건축사 _ 정기호 건축사

가산 건축사사무소 정기호 건축사를 만나기 위해 본지 논설위원인 정영범 건축사와 함께 장흥으로의 여정은 뜻밖의 따스한 햇살과 봄을 재촉하는 2월의 봄날씨에 남도의 봄을 먼저 느끼기에 충분한 날씨가 아니었나 싶다. 그와 봄을 만끽하며 나누었던 그의 설계활동과 회원, 협회에 바치는 점들을 지면으로 옮겨본다.

봄이 오는 2월의 마지막 날. 그와의 첫 만남은 전라남도에서도 외지인 장흥에서 듣기 어려운 경상도 억양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건축사님! 이곳에 터를 잡은지 몇 년정도 되었는지요?”
 “그저 각박한 도심이 싫어 고향인 부산을 떠나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일면부지인 이곳에 터를 잡은지 17년째 접어 듭니다.”
 라고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도 여유롭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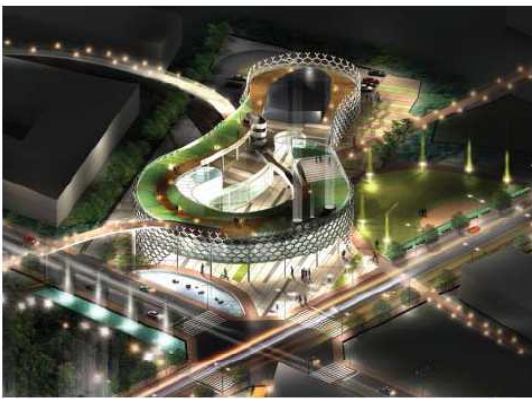
건축설계활동, 작품활동에 대한 소개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멋진 건축물 또는 좋은 건축물에 막연한 관심을 주로 가졌지만 장흥에서 17년정도 설계활동을 하면서 블록집도 한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는 60~70년대의 시골개량집은 3칸집의 형식을 가지며 그 시대에 필요한 문화를 담으며 우리의 요구에 충족한 삶을 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작정 옛것을 쫓아 한옥집을 짓기보다는 시골의 삶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농촌의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건축활동을 한다고 했다. 어떤 건축인이든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내야하기에...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건축사의 각오

너무 빠른 속도로 시대가 바뀌다보니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려울텐데 모든 행정이 수도권중심이며, 각 관계부처에서 진행되는 교육, 특히 협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조차도 지역건축사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구한다 해도 교육이나 세미나 등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건축사들에 대한 배려를 협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시행된 친환경전문가 과정을 서울에서 받았는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아 수업을 듣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의 건축전문가들에게도 가능하게 동영상교육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도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



나노생활실용화센터 설계경기 출품작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건축사님의 업무방향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친환경전문가 과정을 듣게 된 이유가 패시브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몇 년전에 노부부의 주택을 설계했는데 좋은 시설을 갖췄어도 난방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일러를 틀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령화되어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기에 고정지출인 생활비 등을 아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패시브하우스 내지는 제로하우스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더 깊이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대학원에 진학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그는 패시브하우스, 제로하우스 등이 정성적인 데이터는 많으나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어 농촌에 보급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올해의 목표가 자신의 집을 실험주택으로 짓고 싶다고 한다.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실제 공사비와 소요되는 냉난방비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고자하는 그의 말과 눈빛속에 그가 농촌에서 찾은 작은 희망을 보는 듯했다.

건축 이외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그의 기부에 대한 생각은 남달랐다. 해년마다 500~1,000만원의 기부를 한다고 하는 그는 작년말에도 연말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정을 위해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300만원을 전달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따스한 이웃과 사회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사회가 베푸는 사랑이며 투자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

막 개업한 건축사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능력을 펼 수 있도록 PQ제도나 BTL사업등은 변해야 하며 그에 따른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되고, 신용평가등급제도는 부익부, 빈익빈에 일조하는 제도로써 꼭 바뀌어야 된다.

설계경기 또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보면 심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를 공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협회측에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수정하고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며 그래야 출품자가 심사위원들의 결과를 믿음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경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머나먼 여정 끝에 전라도 땅에서 만난 경상도 사나이 정기호 건축사는 결코 범상치 않았다. 농촌지킴이를 자처한 도시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가, 수요자와 사회를 걱정하는 건축인 등등...

올 연말에는 정기호 건축사가 실험주택으로 설계한 패시브하우스를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바라며...

취재·정리 박준호 건축사기자
k21024@chol.com



한남/가산 건축사사무소 정기호 건축사



거문도황여객선터미널 설계경기 출품작



녹동항 여객선터미널 설계경기 출품작



구)삼호서중학교
현재) 삼호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은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외 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 1년
- 구독료 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스페인, 포르투갈 건축기행_ 1부

여행을 하다보면,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 건축사들은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건축인들이 건축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 건축인들이 여러 문물을 접하고 탐구하여 우리의 건축문화를 구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오르가즈백작의 매장, 1588, 엘 그레코

건축사들의 건축여행 모임인 오군회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건축물을 탐방하였다. 오군회의 건축여행은 여행+전문+가족애가 목적이다. 실 체류 10여 일간 60여 곳 이상의 건축물을 탐방하는 빠듯한 일정을 통해 느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건축물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신영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사담, 대표
sairan11m@naver.com



2월 2일 늦은 오후, 선배 건축사님으로부터 "여행이란 나를 돌아보는 것, 답사는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 잘 다녀 오시게나.." 라는 문자를 받았다. 비로소 여행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12일의 여행을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여행 한 달여 전부터 나의 모든 일정은 여행 이전과 여행 이후로 나뉘어졌다. 꼭 실행하고 싶었던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격무를 안겨주었다. 마침내 2월 3일, 우리는 독일을 거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25시간여의 여정 끝에 도착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소트 드 모우라를 만나다!

포르투갈은 지중해성 기후로 상온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이 나라는 인구 1000만여의 작은 나라이지만 2명의 걸출한 건축가를 배출하였다. 바로 알바로 시자와 2011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에드워드도 소트 드 모우라라는 건축가이다. 우리는 시자보다는 모우라의 건축물을 답사하기로 하여, 파울라 레고 미술관과 엑스포 센터를 관람하였다. 파울라 레고 미술관은 지역성과 세계 건축의 보편성을 함께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브라가 스타디움, 부르고 타워, 포르토 지하철역 등과 함께 그에게 프리츠커상을 안겨주었다. 알바로 시자의 제자인 모우라는 포르투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도 함께 작업하였다.



에드워드도 소트 드 무라



공주의 방 천정의 증유석모양 장식, 알함브라 궁전



알함브라 궁전



아름다운 그라나다의 하얀마을



Souto de Moura, Paula Rego Museum, 포르투갈

스페인 세비아에서 콜롬부스와 카르멘을 만나다!

포르투갈에서 중세사람들이 지구의 끝이라 여겼던 땅끝마을, 고딕양식의 레레니모 수도원, 펠렘타 등을 거쳐 이튿날 국경을 넘어 스페인의 세비아를 향했다. 세비아는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이자 오베라 (카르멘)와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무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세비아는 12세기에 이슬람문화의 꽃을 피웠다 하며 지금은 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세비아에서는 대성당과 알카사르, 황금의 탑, 박람회장을 관람하였다. 카르멘이 어공으로 일했다는 담배공장을 보며 카르멘과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으며, 스페인광장의 박람회장에서 가이도가 알려진 김태희 다리에서는 우리 모두 김태희의 이모와 삼촌이 되기 위해 각종 포즈를 취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대성당에 안치된 콜롬부스의 무덤 위의 조형물인 4개국 왕이 콜롬부스의 관을 운구하는 파포먼스는 스페인인들의 콜롬부스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스페인 광장의 박람회장, 세비아



대성당 안의 콜롬부스 묘 위의 조형물, 세비아



역사를 말해주는 한 건물안에 이슬람양식과 고딕양식이 혼용하는 모스크, 코르도바

역사도시 코르도바

코르도바에서는 유대인 거리와 델포르토 광장, 코르도바 모스크를 답사하였다. 모스크는 스페인의 역사를 생생히 증명하는 건축물 중의 하나라고 한다. 스페인은 고트족과 무어인의 전쟁이 극심하였던 곳이고 8세기~10세기에 거쳐 이 모스크를 건립하였다. 그렇지만 13세기 기독교가 무어인을 정복하면서 15세기에 모스크는 대성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다. 기독교의 승리를 모스크의 리노베이션과 확장을 통해 표출한 것이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리스트 타레가의 음악으로도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은, 타지마할의 모델이 될만큼 이슬람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었다. 이슬람건축물은 다양한 아치와 황남백옥의 4색달리, 아라베스크(아라비아 문자와 식물, 기하학적 모티브가 어울려서 교차된 곡선 가운데 융합되어가는 환상적인 무늬)문양이 특성이데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옛 수도 틀레도

틀레도는 과거 16세기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로 옮겨지기 전까지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이곳은 마드리드와 버스로 50여 분 소요되는 근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중세도시답게 요새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틀레도는 역사도시로서 대성당과 알카사르 등 오랜 전통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스페인의 역사적인 화가 엘 그레코의 주요활동 도시이기도 하였다. 대성당에는 라파엘로의 그림과 함께 엘그레코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었으며, 산토도메성당에서는 <오르가즈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여행할 당시 전세계가 이상저온으로 광장히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는데 스페인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따뜻하였다. 하늘은 가을하늘처럼 마냥 푸르르기만 하였고, 버스로 이동 중 펼쳐지는 끝이 없어 보이는 올리브 농장, 푸르디 푸른 초원들은 이국의 정취를 느끼게 하였다. 특히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마을들에서 보여지는 하얀 벽체에 토석 기와지붕의 자연스런 배치는 은은하면서도 시원스러움을 보여주었고, 고층의 아파트가 거의 없는 점이 눈에 띄었다.

여행을 하다보면,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나라의 건축사들은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건축인들이 건축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 건축인들이 여러 문물을 접하고 탐구하여 우리의 건축문화를 구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번 여행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여러도시에 있는 중세건축물과 현대 건축물, 그 나라들의 문화, 지나쳐지는 풍광들 속에서 분출되어지는 모습들을 접하면서 끝없는 속제들을 안겨주었다. 그 속제는 마침내 건축의 구현으로 드러날 수 있으리라...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오군회 회원(좌측 위, 좌정수, 필자, 안성진, 이순미, 박홍근, 장종필, 정영민, 좌측 아래) 김중일, 정명철, 김기준

• 학생기고 •

추운 겨울 이렇게 보내요

강원재 학생기자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스터디하는 모습

2012년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소속 '디자인 동아리 DH'는 3주간 방학스터디를 하였다. 이번은 이례적으로 매년 진행하였던 스터디와는 다르게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타 전공자 등 8명이 한 팀을 이루어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

출업생들은 그동안 작상 일을 하면서 지친 마음가짐을 이번 스터디를 계기로 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타 전공자는 '디자인 동아리 DH' 카페를 통해 사전에 참여의사를 밝

혀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la_kim_(카페매빙)은 미대생으로 서울 소재의 학교에서 편화를 전공하였고, 졸업을 앞두고 주변 여건으로 인해 포기했던 건축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 스터디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3주 동안 계획된 스터디 순서는 작가스터디, 주제스터디, 토론스터디 순으로 진행하였다.

작가스터디 진행방향은 사전에 뽑아놓은 작가리스트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여 작가를 선택하고 작품은 사진을 통해서 정하는 방식이었다.

작품을 사진으로 정했던 이유는 우선, 책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전해 듣게 되면 일차적으로 걸려져 들어온 개념이나 사고들을 전해 듣고 선입견을 가지고 입찰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작가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알아감으로써 무엇이 다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작품은 안도 타다오, 미리오 보타, 필립존슨, 금산주택,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선본사 극락전을 작품으로 하였다.

정해진 작품은 CAD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간단하게 하여 매스감을 알고 난 후에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형을 다 만든 후에는 모형을 한데 모아놓고 우선 자신이 만들었던 작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만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실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든 채 모형을 만들면서 유추해 낸 것을 통해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텔링도 하는 방식이었고, 스터디가 끝나고 자신이 알고자 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스스로 찾아 알아가는 방법이었다.

주제스터디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각자 안을 가지고 중간 중간마다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주제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이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제약을 두어 서로 비교분석을 하는 범위를 만들어 대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제약의 내용으로는 가족 구성원과 대지가 택지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한 가족이 평생 동안 있을 공간이기 때문에 레이 프스타일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성장하여 분가를 하고,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일상의 행동패턴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지를 각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일정성 짧게 스터디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스케치에서 끝나게 되었다.

사람에 따라 스타일이 다양하였는데, 실을 나누어 공간의 연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동선을 구분하고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매스로 진행하는 사람 등 학년, 나이,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방법이 나오게 되었다.

스터디 기간중에 'la_kim_' 닉을 알아가는 시간도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배웠는지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미대생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한 건축을 놓아두고 자화상을 1시간 동안 그려보거나, 서로 짝을 지어 파트너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형상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밖에도 10cm*10cm*10cm 공간을 한정지어 큐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큐브를 정하고 왜 이 큐브가 좋아 보이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도시와 대지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하는 모습



모자이크를 만들고

• 건축물 담사기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김재우 학생기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2월 어느 겨울, 가깝지만 먼 일본 건축물 담사를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그 곳은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한국 같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삼일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의 모습은 내가 일본 땅 위에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했다.

선전국 초입에 와있다는 우리나라는 과연 선전국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서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과연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의, 식, 주'가 어느 선전국 방면에 오를 만큼 수준이 높을까? 특히, 우리의 삶의 그릇인 집은 경제적 이득에 연연해 버리는 데에 그치지 않았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다.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요소가 중요시 되어야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안도다다오의 건축물을 보면 기하학적이지만 기하학적인 요소 사이에서 만들어진 내부의 공간은 얼마나 다양하고 감동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건축가 개인의 고민과 번뇌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알 수가 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연구발전의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노력에 대응하는 건물들이 이곳저곳에 도처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 볼 수 있을 만큼 쉬고 있나?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예전 학교 수업 때 어느 교수님께서 '일본을 알았자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로 인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우리를 눈 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여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발전시켜 지금까지 잘 보존해온 일본을 보면 배울 것은 배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독배기보다 장맛' 같은 한국의 '의, 식, 주'가 되어 지킬 바라며, 나 또한 아직 학부생에 불과하지만 예비 건축가의 사명감을 갖고 '주'에 관한 개인적인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학생기고 •

새로운 시작

정세영 학생기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이때 쯤 대학교들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활기를 띤다. 신입생 첫 후배를 맞이하는 2학년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 또한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는 생각의 교수님들까지 모두 신이 날 것이다.

그렇지만 5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5학년 4학년들은 기사 자격증과 취업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 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입학했던 그때 같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이제 4학년이다. 이번에 끝이 나는 것이라면 후배들 몇 명이 후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것, 그리고 '부활회장'이라는 직위가 끝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면 '건축문화사'의 학생기자가 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후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공모전 준비와 다른 프로그램 공부 그리고 기사 공부 등을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전의 한 암자의 스님이 말하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무엇이나" 라고 물었다. "봄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 스님이 말하시길 "4개월이 지나가듯 봄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질 않겠느냐 그러나 참고 기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힘든 일도 참고 계속 나가면 봄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말을 아마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

4학년 5학년 동기 후배들에게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서 다 함께 꿈을 이루자"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2012년 제1회 광주 건축문화포럼

- 목적
 - 건축사의 함의교육 고취 및 건축전공 학생들의 학구열 제고
 - 일반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역건축문화 발전 도모
- 일시 : 2012년 3월 31일 (토) 09:00~17:00
- 장소 : 전남관역(전주세)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2011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 전주대학교 EM 생활관(2009 제1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 한진한진 종합시원센터(2011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
 - 전주한옥마을 일원

■ 세부 일정 및 내용

시 간	장 소	내 용	비 고
~ 09:00	광주역	집 결	
09:00 ~ 10:20	광주역 ~ 전주대학교	이 동	
10:20 ~ 10:50	전주대학교 EM생활관	건축문화상 시상	
10:50 ~ 12:10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건축문화상 시상	해당 설계사무소 설명
12:10 ~ 12:30	전주한옥마을	이 동	
12:30 ~ 13:30	식 당	중 식	송식 및 자유시간
13:30 ~ 15:00	전주한옥마을 일원	담 사	해설사 설명
15:00 ~ 16:50	한진한진 종합시원센터	아름 및 담사	해당 설계사무소 설명
16:50 ~ 17:00	한진한진센터 ~ 광주역	이동 및 해산	집으로

- 모집대상 :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강사, 강사 및 일반시민
- 모집인원 : 80명 이내(선착순)
- 참가비 : 10,000원/1인
- 입금계좌 : 신한 131-015-175565 광주건축사회 (입금시, 성명기재)
-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기간 : 2012.3.2(토) 09:00 ~ 3.20(화) 18:00
- ▶ 접수 : 전화(062-521-0025,8) 및 메일 접수(광주건축사회 대표메일 <gjkira@empai.com>)

주최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주관 : 건축문화사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전주대학교 EM생활관



한진한진 종합시원센터



전주한옥마을 일원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산하 건축문화 **사랑** 건축사 편집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구분 : 건축사 편집위원
- 모집인원 : 광주지역 편집위원 1인 전북지역 편집위원 : 1인~2인
- 모집기간 : 2012. 3. 10(토) ~ 30(금) 오후 6시까지
- 지원자격 : 해당 지역 건축사 회원 누구나 가능
- 지원방법 : E-mail 접수 : 이력서 메일 (gjkira@empai.com)전송 후 전화 확인
- 문 의 : Tel.062)521-0025~6 Fax.062)528-0026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산하 건축문화 **사랑** 구독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구독신청을 받습니다.

- 구독료 : 20,000원/1년 · 건축문화사랑 맛보기
- 구독료 입금계좌
 -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 신청자 명의 입금후 전화요망
 - Tel.062)521-0025~6 Fax.062)528-0026



본지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 진행

— 광주지역 건축물 답사 및 향후 신문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 열어



2012년도 제1차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이 지난 2월 24일 광주 지역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과 학생기자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향후 신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건축을 탐방과 간담회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건축을 탐방은 본지 편집위원들이 설계한 작품을 위주로 계획되어 광주 북구 '제문헌'과, 북구 '문화여성공원', 남

구 '진월동 514-30'을 해당 설계자들과 함께 탐방하였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본지 발행인인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이 참석하여 그간 편집위원과 학생기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동신대학교 탁지민 학생기자는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건축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향후 건축문화사랑 학생기자로서도 직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향후 본지에서는 신문의 다각적인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 2012 광주폴리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

— 기존 추진위원회에 시민대표,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 5명을 추가 위촉해



지난 3월 6일, 광주시는 2012년 광주폴리 프로젝트를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명이었던 추진위원을 시민대표,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 5명을 추가 위촉해 총 13명으로 '폴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28일에는 회의 통해 시민의견 수렴 방안, 폴리 설치장소, 작가 선정 문제 등을 논의의 한바 있다.

2011 광주폴리는 세계 유명 건축가 10명이 광주읍성을 현대적 의미로 재구성해 새로운 경관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도시전문가, 학생들이 광주를 찾게 하는 성과를 이룬 반면, 시민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이 없이 추진되어 일부 작품의 경우에는 주변 상가의 민원 등으로 인해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에 시에서는 광주읍성터에 설치된 광주폴리를 거울삼아 올리는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전문가들의 답변에 의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작품으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광주읍성터에 설치된 광주폴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재)광주문화재단에서 상시점검을 강화해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폴리문화해설사 양성을 통해 정기적으로 폴리체험투어를 하는 등 문화수도 광주의 도심투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폴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남·전북·전주시건축사회 정기총회 안내

구분	일시	장소
제46회 전남건축사회 총회	3. 20 (화) 11:30	전남 여수시 소호동 디오센터포트 3층
제46회 전북건축사회 총회	3. 28 (수) 10:00	전북 전주 코아리베리호텔
제24회 전주시건축사회 총회	3. 30 (금) 10:00	전북 전주 코아리베리호텔

해당 지역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 2012년 건축사 자원봉사단원 모집

광주건축사회에서는 2012년도 사회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원봉사단원을 구성하여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건축사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구분	건축사 자원봉사단원
모집인원	50인
지원자격	광주건축사회원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사항	독거노인 배식 봉사, 사랑의 집짓기 봉사, 저소득층 지원 멘토링 등등 각종 사회봉사활동
모집기간	2012. 3. 12 (월) ~ 2012. 3. 30 (금)
지원방법	광주건축사회 전화(062-521-0025~6) 및 메일 접수(광주건축사회 대표메일: gkjra@empat.com)

전북건축사회 이성영 회장과 회원일동,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 노인복지회 방문하여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성금 100만원과 기품품 전달도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성영 회장(아름 건축사사무소)을 비롯한 전북여성건축사위원장 김희순 건축사(주)을그룹 건축사사무소, 전주시의원 박진만 건축사(주)중합건축사사무소, 소장 등 회원 15명은 지난 2월 2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사랑복지회를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 100만원과 기품품을 전달하였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좁고 길었던 겨울 끝자락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였다.

전북 추원호 건축사, '2012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

— 지난 2월 20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회복지공로발전 대상 받아



전라북도건축사회 추원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가 2012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되었다.

지난 2월 20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언론인연합회의 등 5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추원호 건축사는 국제라이온스클럽 임원과 CBMC 기록산업인회 명예회장으로서 서예 강의 불우어웃음기, 개척교회 교육관 추진, 환경캠페인 봉사와 함께 대학 강단에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회복지공로발전 대상을 받았다.

'한국을 빛낸 사람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한민국 이미지 홍보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전북건축가협회장에 전주비전대 건축과 유남구 교수 재추대

— 지난 2월 8일 정기총회 개최하고 유남구 회장에 대한 재추대 의결



전북건축가협회장에 전주비전대 건축과 유남구 교수가 연임됐다.

전북건축가협회는 지난 8일 정기총회에서 유남구 교수를 제24대 전북건축가협회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유남구 교수는 전북대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한건축학회 전북회 회장, 전북도 건축문화재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전북예총 부회장으로도 선임되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 건축물 연결한 역사테마거리 조성

— 문광부 주관, 2012년도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선정

지난달 23일, 군산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12년도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군산시가 신청한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은 군산시가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근대 건축물을 하나로 연결한 근대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 계획이다.

앞으로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조성사업에 따라 원도심지역 재생에 총 32억6000만원이 투자되고, 그동안 구축된 하드웨어적인 근대역사문화 관광 인프라가 동선으로 연결된다.

시는 '1930 근대군산 스토리텔링(원도심 지역)', '탐방로 정비(근대역사 박물관~근대역사 체험공간)', '맛의 거리 조성(이성당~구 월명동사무소)' 등 올 상반기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시설사설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원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건축 다큐멘터리 영화 '말하는 건축가' 3월 8일 개봉

—故 정기용 건축사의 마지막 건축 철학 다뤄, 전국 20여개 상영관에서 상영 중



故 정기용 건축사의 마지막 건축 철학을 다룬 영화 '말하는 건축가'가 지난 3월 8일 전국 20여개 상영관에서 개봉되었다.

영화 '말하는 건축가'는故 정기용 건축사가 대장암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전시 준비 과정을 축으로 그의 삶의 궤적, 그의 건축 철학과 작업,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한 인간의 예민한 심리를 포착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대표 출연진으로는故 정기용 건축사, 승효상 건축사(주) 중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유 걸 교수(경일대학교 석좌교수)이며 현재 수도권 12개 영화관과 지방 8개 상영관에서 상영 중이다.

- 상영관 안내
- 수도권 : CGV강변 / CGV구로 / CGV상암 / CGV압구정 / 메가박스 코엑스 / 메가박스 이채 / 메가박스 신촌 / 스펀지하우스 광화문 / 아트하우스 모모 / 상상마당 / 씨네코드 선재 / 씨네큐브
 - 지방 : CGV동수원 / CGV오리 / CGV인천 / CGV서면 / 부산 아트씨어터 C+C / 메가박스 오두부산(제) / 롯데시네마 대구 / 롯데시네마 청주

광주 건축계 동정

- *입회**
 - 김승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를 / 광주 북구 무등로 255 (중흥동 694-10) 1층 / 전남 → 광주
- *폐업**
 - 장근영 건축사 / 씨에이치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변경)**
 - 오지홍 건축사 / 아산 건축사사무소 / 북구 용강길 112-13 (용강동 331-3)
- *결혼**
 - 김희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 장남 / 3월 10일 (토)
- *부고**
 - 정정삼 건축사 / 정삼 건축사사무소 / 빙 부상 / 2월 24일 (금)

전북 건축계 동정

- *입회**
 -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86-123
 - 강정용 건축사 / 삼호종합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3-8
 - 김병호 건축사 / 동원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노송여울 2길 154
 - 장영길 건축사 / 기성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50-13 202호
 - 김진권 건축사 / 나무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3
- *건축사명 변경**
 - 김봉운 → 김태운 건축사 / 공간 건축사사무소/전북 김제시 요촌동 371-9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왕성호 건축사 / 푸른&다에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완도를 군내리 787
- *전입**
 - 정영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현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92-6
- *변경(소재지 변경)**
 - 김낙현 건축사 / 현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시청길 15-8
 - 박현진 건축사 / 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길 30
- *목포지역 건축사회 사무소 이전**
 - 이전주소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에메랄드 법조빌딩 303호 1202-1
 - 전화번호 : (061)272-3349
 - 이 전 일 : 2월 14일 (화)
- *부고**
 - 유기천 건축사 / 성지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월 4일 (토)
 - 권환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산건축 / 병부상 - 2월 11일 (토)
 - 장영삼 건축사 / 건이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월 12일 (일)
 - 김재욱 건축사 / 유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월 22일 (수)
 - 이천식 건축사 / 코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3월 4일 (일)
- *기타**
 - 유영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무한건축 / 사무소 개업식 - 2월 25일 (토)
 - 김희순 건축사 / (우)을그림 건축사사무소 /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전주클럽 회장 취임 - 2월 16일 (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법률 제1365호 2012-02-22)**

1.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생산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물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관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건축주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92호 2012-02-0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토지거래허가 시 투기목적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인·허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2012.2.23.)되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

광주·전남·전북지역 3월 지역축제 안내

- 03. 17 (토) ~ 03. 25 (일)까지 2012 광양 국제메타문화축제 - 전남 광양시 섬진마을
- 03. 23 (금) ~ 03. 25 (일)까지 제6회 광양 꽃축제 - 전남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 03. 23 (금) ~ 03. 25 (일)까지 제13회 구례 산수유꽃축제 - 전남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단지
- 03. 24 (금) ~ 03. 25 (일)까지 제3회 땅끝마을축제 - 전남 해남군 보해마을농원 일원
- 03. 30 (금) ~ 04. 08 (일)까지 2012 광주봄꽃박람회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 04. 01 (일) ~ 04. 30 (월)까지 2012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 -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일원
- 04. 06 (금) ~ 04. 09 (월)까지 2012 영암왕인문화축제 - 전남 영암군 왕인박물관 일원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광주에서 뵈겠습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윤문근, 이성엽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이소미, 서재경, 김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이광영, 박상윤, 전경호, 박승국,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표/지/설/명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박홍근 예술감독이 밝혔듯 장소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공간·자연·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명공간'을 오는 5월 5일 기대해 본다.

건축문화 **사랑** **신분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 반석기(이엔씨주) 100만 원
강 필 서 | (주)공진동인 건축사사무소 50만 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건/지역소식/동료회소식/책/수상/수필/직업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사건 등) 회원들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nicelawyer.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연락처를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본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첫 만남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

2012년 제 1회 건축문화사랑 워크숍을 다녀와서...

2012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세시를 조금 넘긴 시각, 사람들은 제문헌(광주 북구 용봉동) 앞에 모여 있었다. 나는 미안한 기색과 어색함을 애써 감추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처음 보는 얼굴들. 간단한 인사와 함께 건축문화사랑 워크숍의 첫 순서인 건축물 탐방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카메라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담으며 편집위원이자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님들의 설명을 들었다. 쉽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건축사님의 설명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 두리번거렸던 우스꽝스러웠을 내 모습을 떠올리면 웃음이 난다.

사진은 늘 아쉽다. 내게 다가온 느낌이 사진 속에 잘 담기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는 멋진 공간의 느낌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것을 공유하려 사진을 이용하지만 아직 표현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건축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공간을 얻어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좋다. 건축사가 디자인하는 디테일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단순히 미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단어가 아닐까?

제문헌은 단순한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디테일만큼은 무척 섬세했다. 사람이 머물러있는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 보일지를 고려해서 창에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냈다. 특히 대나무가 있는 중정으로 난 창은 한 폭의 수묵화 같기도 했다.

문화여성병당(광주 북구 운암동)에서는 실제 경험담을 통해 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공간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의도된 공간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베이포 레스토랑(광주 남구 진월동)은 겉으로 보기에 무척 좋아 보이는데 그곳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오히려 아늑한 느낌이 들었고, 갈색 톤의 유리창이 부드러운 느낌을 더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사선의 외부형태로 인해 비가 오는 날 외부계단을 내려오는 동인은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었다. 실제로 이날 비가 살짝 내렸는데 지붕은 한참이나 위에 떨어져있음에도 비를 맞지 않으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웃이 찌지 않아 편했다.

우리는 친해질 수 있을까? 편집위원님들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기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사는 곳만큼 아쩡 그리 제각각인 서로 비슷한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 없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것이 또 건축의 특성이라면 특성일지도 모르겠다. 타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가 전무 하던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학생기자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한다면 말이다. 처음 가본 워크숍은 말 그대로 어색했지만 만남을 기대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두현정 학생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봄날의 풍경

태완성 시무로장
전라북도건축사회

덜덜거려며 돌아가고 있는
냉장고 소리가 숨이 가쁘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바꾸어아할 세간도 많고
돌러보면 주위가 퇴색되어 누렇다
아내가 살아온, 그 경제색깔이다

사내는
아내의 경제색깔을 들여다보며
삶의 무게를 가늠해 본다.

간조대에 낳린 아이들의 빨래는
구김살 없이 가지런하고
배란다 배수구 틈새에서는
지난 가을 감장때 버려진
고추씨가 푸른 움을 피우고 있다

사내는
봄 햇살의 유혹 속에
밀려드는 오수를 참지 못하고
구부구부 졸다가, 감쪽 감쪽 놀란다

눈꺼풀의 무게에 저항하기보다는
일부러 놀라는 척
졸음과의 동거가 아름답다.

「감응의 건축」

정기용 저 / 현실문화

이슬기 시인
건축사사무소 시립



대학시절 휴건축 수업을 들으며 한창 휴이라는 전통 재료에 관심을 갖던 때가 있었다. 그때 접하게 된 건축가가 바로 휴의 건축가 정기용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래서 바로 대출했고 3일 만에 전부 읽어버렸다.

동시에 이 책을 대출한 것을 후회했다. '이 책은 정말 소장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북 무주 일대의 30여 곳에 크고 작은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엮은 내용이다. 무주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실태와 공공건축의 행태를 꼬집고 있으며, 한편으로 앞으로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해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책이다.

사실 무주프로젝트 자체가 감응이다. 어디에 또 이런 자치단체장이 있고, 어디에 또 이런 건축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둘의 만남에서 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정기용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관적으로 유지했던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이야야 한다는 가치관이었다.

또한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단순히 주민들 입맛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부작용으로 슬라브가 좋다고 각인된 농촌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멋지게 슬라브를 차는 것이 아니라 '휴건축의 우월성'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말이다.

나도 것처럼 비록 화려하고 크진 않지만 실감고 정이 듬뿍 묻어나는 사회를 위한, 이용자를 위한 건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한 책이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축을 대해야 하는지 앞으로 이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함침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책이었다.



꿈

조그마한 캔버스 안에 몽그리한 집 한 채가 가득
거센 눈보라가 오면 금방 부수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묵직한 사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수 백 년의 그루터기가 위로해주는
안락한 휴식처에 마음을 담아본다.

김금진 건축사작 /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광주)



홍도는 ...

해질녘 섬에 내려앉은 석양처럼 붉게 보인다하여 '홍도'라 불리는 곳.
언제나 너를 부른다.
늘 그랬듯 자연과 사람의 자취가 동화되어 거기에 그렇게 있다.

촬영자: 천경훈 건축사작 / 전남 신안 홍도

사진으로 보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5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 도시디자인국 이욱현 국장, 시의회 김민중 의원 등 많은 내빈 참석
- 올해 처음으로 광주 건축사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장상 시상으로 건축사 위상 제고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2월 2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을 비롯하여 광주시 도시디자인국 이욱현 국장, 시의회 김민중 의원, 대한건축사협회 이창을 부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윤문곤 회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성엽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의 표창패 수여부문에 광주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사에게 광주광역시장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의원 및 공무원, 기업인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밖에 임기가 끝난 임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되었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건축물 지도점검위원회 위촉식 또한 진행되었다.

1부 행사가 끝난 후 2부 행사에서는 3개의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며 임원, 대의원 개선의 건에서는 ▶이사 6인에 '강석훈-건축사사무소 선정, 강필서-(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현구-조형 건축사사무소(주), 안길진-(주)일우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해란-나래 건축사사무소, 한명석-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이 선출되었고 ▶감사 1인에 '이광천-동신 건축사사무소', ▶대의원 7인에 '강필서-(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김 곤-선택 건축사사무소, 이광천-동신 건축사사무소, 이창을-(주)이에이 건축사사무소, 정명철-(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재한-(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최경양-한샘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되었다.



① 광주건축사회 제25회 정기총회가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② 건축사 현장 감독 순서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시계 12시 방향에서 반대순서)과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전남건축사회 윤문곤 회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성엽 회장
 ③ 제25회 정기총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④ 격려사를 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
 ⑤ 광주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축사를 하고 있는 광주시 도시디자인국 이욱현 국장



⑥ 강성익 회장으로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공로패를 전달받고 있는 이광천 건축사(동신 건축사사무소)
 ⑦ 광주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사에게 수여되는 광주광역시장상을 송건 건축사(대호 건축사사무소)와 정명환 건축사(디에이 건축사사무소)가 수상하고 있다.
 ⑧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주건축도시·문화재가 지역건축문화 선도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력한 광주시의회 김민중 의원에게 광주건축사회장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⑨ 광주시 교육청 안인 지방시정 사무관에게는 평생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진취적, 창의적 사고를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특히 건축설계경기 운영에 있어 지역 건축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의욕을 고취시킨 점을 인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⑩ 광주시 서구 건축과 박성근 지방시정 주사보와 광주시 건축주택과 전태엽 지방시정 주사보에게도 바쁜 건축행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광주건축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과 건축사 위상제고에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⑪ 본지 건축문화시랑의 최대 광고주이자 건설한 기업인인 반석기초이엔씨(주) 문형록 대표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⑫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광주건축사회 6인의 임원에게 재임하는 동안 대내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건축사회 위상제고에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⑬ 올해부터 2년간 본지 건축문화시랑 편집인으로 선임된 서재형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선가 심상봉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⑭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건축물 지도·점검위원회 위촉식이 열려 신찬균 위원장(건축사사무소 우창) 외 6인의 건축사에게 위촉장이 수여되고 있다.
 ⑮ 이날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이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등록위원회 위원인 이성엽 건축사가 참석하여 2012년 5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건축사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주)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정 명 철

2012년 힘차게 도약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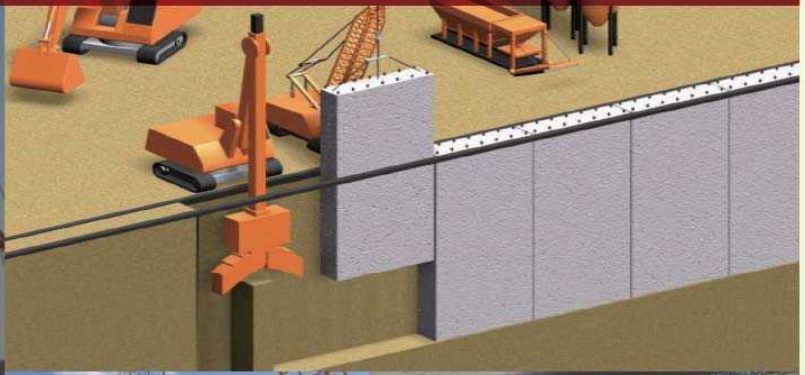
- < 특 허 획 득 >
- 특허 제 10-1061822호 유리섬유망을 이용한 구조체 보강공법
 - 특허 제 10-1082863호 단면보수공법
 - 특허 제 10-1082864호 친환경 표면 보호공법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amg-group.co.kr>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 때입니다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팡이기초**

본 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25-1번지 반석빌딩 2층

T. 031) 577-1673 F. 031) 577-1674

광주지사. 김유성 이사 010. 5007. 8437



반석기초이앤씨(주)

www.bs-base.co.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